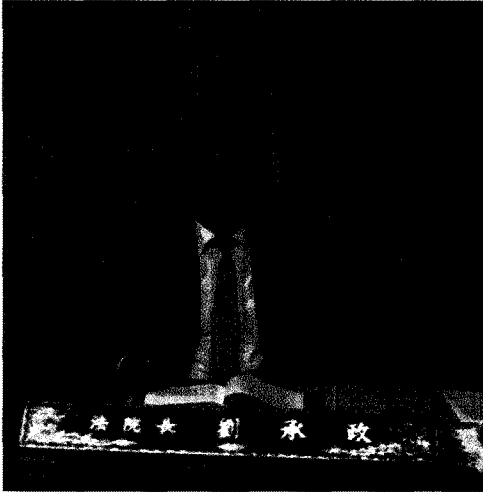


건축 초대석

Invitation to Achitecture



유 승 정

서울대학교 법대 법학과 졸업
 서울형사 / 민사지방법원, 마산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
 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대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장 /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건축의 사회적 지평확장을 위해

이제 시대와 사회는 전문화와 함께 열린사회, 통합화, 대중화를 도모하며, IT의 발전은 그 개방, 참여, 공유의 현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또한 위계적 사회 체계를 넘어 본질적이고 수평적인 평등과 협력, 소통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근래 건축 또한 기술이나 건축 자체만이 아니라 도시, 길, 환경과 녹지, Landscape, 지속가능성 등 포괄적 이슈를 떠날 수 없다. 건축 체계에서도 강제적 규제에서 재량적이고 창의적인 틀을 수용하고, 각 지역민의 삶과 그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건축사들도 그를 책임 지고 관리 할 역할은 물론 의식적 유연성과 함께 보다 큰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에 제의 건축 공동체인 본 협회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바람직한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먼저 사회적 지도층, 저명인, 나아가 일반인에게까지 적극적 소통을 도모하여 그들과의 공유공간을 넓히며 개별을 넘어 공론적 건축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직능적 업무로 건축설계는 '법무서비스'이다. 현실적으로는 건축 관련 소송의 판결, 조정, 조사 및 감정 등의 최종 업무와 함께 사회적 관행이나 제도, 장치 지식재산권에이르기까지 실제로 그 관련성이 적지 않다.

또한 가족구성원 중 건축 전공인이 있어 건축에의 관심이 높고, 건축법에 대한 연구이력이 깊은 법조인 한 분을 택하였다.

박찬정 : 안녕하세요. 공사다망하실 텐데 이리 '건축사지'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화곤 :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승정 : 개인적으로 건축분야의 전문가인 건축사들과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반갑기도 하지만 건축전문분야에 끼어드는 것은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김 : 오늘은 편하신 마음으로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유 : 원래 법률전문가로 살아왔기 때문에 건축에는 비전문가입니다. 제가 건축 전문분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박 :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이 이제 사회 속으로 성큼 걸어 나왔으며 또 저희들은 너무 나무만 보았지 사회 속에 있는 건축이라는 숲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전문가이자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이신 유 법원장님의 평소 생각이 우리에게 곧바로 문화로서의 건축이라 믿습니다.

김 : 요즘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분야가 서로 소통내지는 통섭하고 있습니다. 평소 건축문화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 : 사회가 점점 전문분야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럴수록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회에 더 다가가는 동시에 각자의 전문성을 더 객관적으로 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믿습니다. 아마 건축사들 역시 기존의 생각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관점으로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건축문화를 만들어야하며 그 수단으로 인문학적인 이야기와 스토리로 건축문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박 : 건축사보다 더 전문적인 핵심을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질문하나 하겠습니까. 현재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유 : 부모님 모두 생존해 계시는데, 연세가 80이 넘었으며, 형제로는 누나 1명,

남동생 1명이 있으며, 처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저의 가족구성원입니다.

김: '역동의 시절'을 살아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살아오신 주거 형태는 어떤 변화를 겪었습니까?

유: 제가 한국전쟁이후 태어난 세대로서 그 당시 다들 어눌한 초가집에서 살다 이른바 기와집으로 불리는 좀 넓은 한옥에 살다가 70년대 마당이 있는 양옥집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대학을 졸업하고 법조인으로 바쁘게 살면서 지금까지 아파트문화에 젖어들었습니다.

박: 살아오신 주거 형태 중 가장 인상적이었거나 삶의 추억이나 경험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유: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주거형태는 단연 한옥(단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는데, 무엇보다 이웃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서로 잘 알 수 있었던 것이 요즘의 아파트 생활과는 다른 것 같고, 심심할 때면 담장 벽을 타고 돌아다니거나 지붕 위에 올라가 저녁노을을 바라보고 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추억은 우리 집 맞은편에 '떼떼네'라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엄마가 아침이면 잔소리를 많이 하였습니다. 자식을 야단치는 소리, 밥하는 소리, 물 걷는 소리, 가끔 그릇 깨지는 소리 등 일상이 고스란히 노출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살아가는 마을에는 요즘 말로 경계가 없었습니다.

김: 정말 재미난 한옥의 정취에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직접 건축 행위를 하시거나 옆에서 지켜보신 경험이 있다면?

유: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 제가 대학교 다닐 무렵 부모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을 건축업자를 시켜 신축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구체적으로 벽과 바닥과 실내공간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막연하게나마 집도 사랑처럼 시간과 정성과 비용을 들이며 만들어가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살아오시면서 건축 행위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유: 신축하고 나서 입주식이라 할까 그런 것을 하면서 건축 일에 종사한 분들이 쿵쿵 다져줘야 좋으면서 노래를 부르며 마루를 구르고 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집을 짓는 일도 우리만의 전통적인 스토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지금의 주거 형태는?

유: 아파트입니다.

박: 아파트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의 단독주택과 비교해서.

유: 아파트는 기능적으로 상당히 현대인에게 편리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문만 열고 들어가면 사적인 공간이 주어지니까요. 그러나 약간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옛날처럼 서로의 삶을 엿볼 수 없는 것은 확실해요.

김: 본인이 직접 주거를 선택하셨던 경우 그 선택의 기준은?

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87년도에 이사 왔습니다. 우선 조용하고, 서울 시내로서는 비교적 공기도 좋고, 무엇보다 예쁜 유치원이 바로 앞에 있어 당시 자녀들이 유치원 다니기에 좋겠다 싶어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지하철 2개 노선이 지나가 교통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집값이 강남 보다 많이 낮은지 의문입니다.

박: 아파트주거에서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을 지적한다면?

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외국아파트를 보면 1층에 공동의 사랑방 같은 홀을 두고 의자와 사진들이 걸려있는 것이 특이하였습니다. 아파트실내는 결국 배치를 바꾸는 것이라면 옛날 전통 주거처럼 현관입구에 아버지 방을 사랑방처럼 만들어놓고 손님들이 오면 거실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이 드는군요.

박: 혹시 인상적이었거나 기억에 남는 외국 도시나 건축은?

유: 개인적으로는 베니스를 가장 좋아합니다. 꼬불꼬불한 골목길이 정답입니다. 특히 종루에 올라가서 베니스의 전망을 바라볼 때 비슷비슷한 건물들이 서로 이마를 마주하며 서있지만 위에서 바라보는 건물들이 수채화처럼 아름다웠어요. 수로와 골목이 엮을 지으며 서있는 건축물이 이색적이었어요. 그러나 수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가까이 보는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 참 아내와 조용히 걸으며 맛 집을 찾아갈 때 두 사람이 스쳐 지나기가 버거운 좁은 골목길에서 잊어버린 고향의 정취를 느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좁은 골목길에 기대서 있는 작은 음식점에서 돼지뒀다리를 절인 고기를 곁들여 먹었던 추억이 떠오르는군요.

김: 건축사의 직능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유: 설계, 감리가 주된 것 아닐까요.

박: 혹시 도시설계나 공공디자인, 경관설계 등의 업무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은 없구요?



유 : 네. 미안합니다만 아직은 잘 모르고 있네요.

박 : 앞으로는 건축이 그렇게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다룰 수 있음을 아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 : 네. 그러하겠습니다.

박 : 건축 관련 분쟁이나 소송 시 제일 어려웠던 점은?

유 :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는 경우, 특히 추가공사에 대하여는 서류로 정하여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약정하였는지 쌍방의 주장이 같으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의 기성고비를 산정도 어려운 것 같고, 하자에 해당하든지 여부에 대하여도 다툼이 많습니다.

김 : 그 분쟁이나 소송을 줄여나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것은?

유 : 계약 내용을, 추가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분명히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자 발생의 방지 및 기성고비율 산정 등을 위하여도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감리 활동 및 감리일지의 작성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 건설회사나 광고회사의 분양광고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지, 혹시 부족하다면 개선이나 보완 되었으면 하는 점은?

유 : 별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허위라고까지야 말하기 어렵겠지만, 상당부분 과장 광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능 위주로 홍보하는 것 같은데 실 자산적 가치가 그런 것만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저 나름의 뚜렷한 다른 관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전문가의 얘기를 더 듣고 싶네요.

김 : 건축을 기술적 종합만이 아닌 창작 행위로 보시는지?

유 : 그렇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건축이 많이 대중화되어 문화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박 :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유법원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건축은 자본재, 재화의 가치로만 평가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박 : '좋은 건축'이란 어떤 것이라 보시는지?

유 :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도 오래 가거나 오래 쓸 수 있는 건축이 좋아 보이는 게 많고 그리 인정받는 것 같아요. 단순한 생각입니다만, 일단 어떤 노력이나 비용을 들인 만큼 오래 쓰려면 환경 문제를 포함하여 그 효용 가치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싫증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싶은 것, 처음 건축한 사람의 해안이 느껴지는 그런 건축물에선 알 수 없는 어떤 힘과 매력을 느낍니다.

박 : 정말 단순하지만 사실적 해안이십니다.

김 : 그런 건축, 환경을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은?

유 : 아무래도 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보다 나은 의식이 먼저가 아닐까 합니다. 그 동안 저도 빨리 짓고 개발, 성장함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상황을 보니 우리가 모르는 환경이나 기후 문제 등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근본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젠 보다 신중한 접근과 보다 깊고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이나 건축 같은 긴 수명의 것에는 무조건 싸고 빠른 것만이 능사가 아님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 : 만약 건축하실 기회가 생긴다면 제일 앞세울 가치나 희망사항은?

유 : 아직은 별로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만, 경제적 가치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의 일부인 듯 한 것, 인간을 포근히 감싸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박 : 저희들도 그런 자연주의, 인간주의 가치를 지향하지요.

김 : 건축/도시가 환경이나 사회문제의 핵심사항의 하나로 보신다면 '시민건축포럼' 같은 것이 결성된다면 참여 의사는?

유 : 제 능력을 베탌다는 일인 것 같습니다.

박 : 올 5월 16일 당 법원에서 한국서도소리보존회 산하 가례헌 운영자이신 박정욱 선생을 초청하여 문화예술아카데미를 개최하셨는데, 여건을 보아 '건축아카데미'도 개최함이 어떠실지요?

유 : 문화행사로서 반응이 좋았지요. 기회가 된다면 진짜 그리 한 번 해 볼까요?

박, 김 : 적극 호응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박 : 건축을 짓는 과정 관리와 함께 어떻게 유지 관리되어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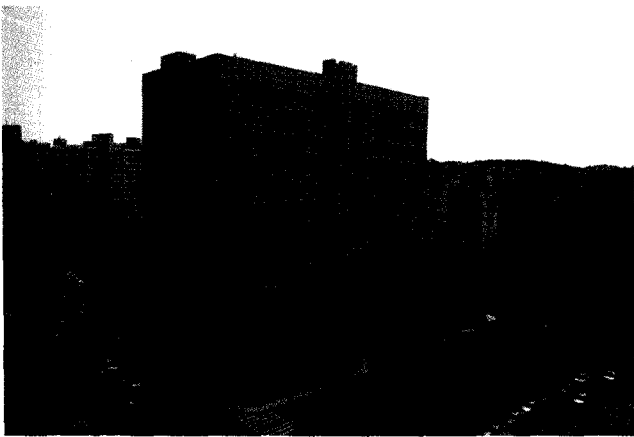
유 :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법적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 : 물론 개별 자산이지만, 한편으론 공공 자산의 의미도 있지요.

유승정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유승정 법원장은 다양한 공직업무를 소화하는 법원장으로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정확, 신속, 친절한 사법서비스를 통하여 시민으로부터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분으로 본 '건축사지'와의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 주셨다. 소탈한 품성을 갖춘 분이지만 법조인의 품위가 온몸에 서려있는 우리사회의 선배(법원 직원들의 진솔한 표현)이신 유승정 법원장님과의 격이 없는 대화를 소개함으로써 건축문화에의 초대와 공감을 통해 건축의 사회적 지평을 넓히고 싶었다. 간단한 중식과 함께 가벼운 대화와 부드러운 분위기 조성 후 법원장님의 직접적인 에스코트(?)를 받아 본 취재 차량을 본 청 현관 정문에 주차케 하며 평소 여러 단계의 검사 과정을 생략 한 채 곧장 법원장실로 안내 받았다. 법원장님의 지시나 교육 덕분인지는 모르나, 관계 모든 직원의 깎듯하고 정중한 대우를 받으며 편안히 촬영이나 녹음 등 취재를 원만히 마치고 보니 건축사가 자주 대하는 관련 부서 공무원과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 보다 인간적인 믿음이나 유대감이 일어남은 나만의 느낌만은 아닐 듯 싶다.

인터뷰 및 정리 / 박찬정, 김희곤



어서 함부로 기능적인 공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미래에 다시 짓는다면 지금보다는 친근하고 배려하는 이미지의 건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결코 법원의 고유한 품격만은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박: 법원의 품격이란?

유: 지나치게 자유곡선적인 건축물로 지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위압적이 없는 범위에서 안정적이었으면 합니다. 예로 로마 바티칸의 성베드로성당의 원형회랑처럼 전체적으로는 균형미를 갖추고 있으면서 성모님의 품처럼 원형으로 팔을 벌린 형태가 관광객들에게 이룩한 어머니의 품속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그런 품격이 느껴졌으면 합니다. 법정도 다양한 형태의 공간으로 품격을 흐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유: 애 그렇겠군요. 공, 사가 함께 관리한다면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문가 그룹이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제도적 틀을 만들어 보시죠.

김: 살아오시면서 특히 법원장님의 가슴에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추억이 살아있는 건축물이 있다면?

유: 아주 젊은 시절의 추억이 하나 있어요. 아마 70년대 중반 정도로 기억 되는데요. 제가 고시공부를 하기 위해 대구주변 은행사의 작은 암자를 찾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아마 7개월 정도 생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 다시 찾아보았을 때는 인공의 때가 너무 많이 묻어서 조금 안타까웠지만 그 당시는 천혜의 자연풍광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처음으로 자연이 또 다른 어머니 품속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온천지가 까만 밤 촛불에 의지해 공부할 때 그 순간은 무아지경이었어요. 특히 비오는 여름날 빗바닥에 누워 빗줄기를 바라보면 자연이 연주하는 거대한 교향악을 듣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박: 만약 원장님의 자식이 미래 건축사가 되어 법원건물을 설계한다면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지?

유: 생각해보지 않는 일이라서. 현재의 법원건물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있

김: 상당히 건축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박: 끝으로 사회나 정부, 그리고 건축사에게 바라시고 싶으신 것은?

유: 참, 제가 언급하기엔 조심스럽네요. 마지막이라고 하시니... 결국 원칙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바람직한 방향과 기준'이란 측면에서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어 잘 관리했으면 하구요, 사회는 각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이나 그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여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성 함양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사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개별적 업무만이 아니라 보다 큰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안목이 부족한 탓이겠지만, 아직은 그러한 사회적 역할은 잘 눈에 띄지 못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전문가로서 사회문제의 급소를 찾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법조인인 저희들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결국 미래를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건축과 환경을 이끌고 갈 전문가들이기에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꾸준히 연구해 가는 존경 받는 건축사 되시길 바랍니다.

박, 김: 귀한 시간 내주시고, 진솔한 말씀 감사합니다. 📷